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 최근 네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E.B.C) 트레킹에 나선 광주·전남 교사들이 녹아내리는 쿨부빙하를 살펴보고 있다. 뒤쪽 검은 봉우리가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해발 8848m)이다.

쿨부 빙하에 얼음은 없고 돌무더기만

르포-지구온난화 현장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글·사진=네팔 송기동기자

▶시리즈 13편

“여기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E.B.C)입니다. 기후 변화 탓인지 매년 빙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팔 가이드 총바 셰르파(31)씨는 “발길을 조심하세요. 크레바스(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틈)가 있을 수 있어요”라고 주의를 줬다.

지난 15일 찾은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에베레스트(해발 8848m) 베이스캠프, 에베레스트 트레킹 코스 맨 마지막 롯지(lodge, 산속의 간이 숙박시설)인 고라켄에서 오전 6시 출발해 두 시간을 걸어 도착한 그곳은 춥고, 적막하고, 황량했다.

네팔수도 카트만두에서 18인승 프롭비행기를 타고 트레킹 관문인 루크라(해발 2840m)에서 내린 후 락딩→남체 바자르→빙보체를 거쳐 포박 8

백9일간 걸여 고라켄(해발 5140m)에 당도했다. 주로 해발 100m 아래에서만 생활했던 기자에게 5000m 이상 높이에 오르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고도를 높일수록 희박한 공기에 신체가 잘 적응하며 열려했던 두통과 불면, 설사 등 고산병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트레킹의 최종 목적지인 ‘칼라 파타르’(Kala Patthar·해발 5550m)에 오른 이튿날 새벽 E.B.C를 향한 것은 그곳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었다.

해발 5365m에 자리한 E.B.C는 에드먼드 힐러리의 첫 등정(1953년) 이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오르려는 산악인들의 꿈의 출발점이다.

막상 E.B.C에 발길이 닿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빙하가 아닌 끝없이 펼쳐진 회색 돌무더기였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산비탈에서 부

빙하 매년 10여m 축소

해발 5365m E.B.C

암석 뒤덮은 채석장 변모

서저 내린 암석조각들이 빙하 위를 뒤덮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쿨부(Khumbu) 빙하’다.

하지만 E.B.C 일대 빙하는 과거에 비해 점점 녹아내리고, 산에서는 침식 현상이 반복되면서 채석장 같은 풍경으로 변하고 있었다. 얼음덩어리 위에 커다란 바위가 올려져 있기도 했다.

현지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지구 온난화’와 연관시켜 해석한다. 산발발달에 따라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이 늘며 이산화탄소가 증가, 온실효과를 가속시켜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빙하가 점차 녹으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은 지난 200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히말라야 빙하는 최근 그 길이가 매년

10~15m씩 축소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반구 중위도(북위 20~50도)의 연평균 기온이 0.6도 올랐으나 히말라야 지역은 1도 안팎이나 상승해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히말라야 빙하가 향후 40년 안에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탐방에 동행한 김동철(53·광주체육고) 교사는 “쿨부빙하가 생각보다 많이 녹아내려 안타깝다”며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전(全) 지구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song@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동구동 1-1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정치특강 - '나꼼수' 정봉주 前의원 ▶2면

“민주·安신당 연대 못하면 야권 전멸”

“야권은 무조건 연대해야 한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다. 야권 연대를 두려워하는 것은 보수와 새누리당이 다”

‘나꼼수’로 잘 알려진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정치특강에서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의 ‘3파전’으로 선거구도가 형성되면 야권은 전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보수연론은 야권연대를 아합이라고 규정하고 프레임만 만들고 있고, 야권은 연대하면 마치 구태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큰 잘못”이라며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에서도 많은 정당들이 소연정, 대연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



수, 세대간의 갈등으로 잠정된 대한민국의 분열을 이제 통합의 정치로 이끌 만능이고, 야권은 연대하면 가는 게 큰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 야권이 정채성과 선명성을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연대와 통합으로 갈 것인지

다”며 야권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열은 마이너스고, 연대는 플러스다”라며 “남과 북, 동과 서, 진보와 보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 진영 모두 함께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대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톱 정치, 기독교를 놓는 정치,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새신, 안철수 신당은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새신과 비전이 없다”며 “보수세력과 새누리당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 진영이 서로 기대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다”고 양 진영에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민주당이 기독교 분열을 이제 통합의 정치로 이끌 만능이고, 야권은 연대하면 가는 게 큰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 야권이 정채성과 선명성을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연대와 통합으로 갈 것인지

알림

광주일보 지방선거 후보검증단 구성

광주일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량을 뽑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의 인물·정책 검증 을 위해 ‘광주일보 지방선거 후보검증단’을 구성합니다.

단체장을 잘못 뽑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성년기로 접어드는 올해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후보검증단은 지역 단체장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인물 검증과 공약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군은 장관급 이상, 재선 이상 국회의원, 대기업 CEO 출신, 저명한 학자, 시민운동가 등 중량감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자질은 물론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것입니다.

◇후보검증단

- ▲단장=기현호 편집국장
- ▲검증단=김윤옥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전남대병원 진료처장) 조미옥 광주일보 독자위원회(영산포여중 교사) 정후식·박치경 편집부국장, 박지경 차장(서울취재본부) 최권일 정치부 차장, 오광록 정치부 기자

光州日報社

BASF
The Chemical Company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깨끗한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지구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음에도 마실 물이 부족한 안타까운 미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화학이 필요합니다. BASF는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담수화장치에 불순물 막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분산제 Sokalan(소칼란)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제품으로 인해 해수 담수화장치의 수명은 더욱 길어지고 신선한 물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바닷물도 우리의 목마름을 달래 줄 수 있습니다. BASF, 화학으로 더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BASF의 비전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www.wecreatechemistry.com/water 에서 확인하세요.

우리가 만드는 화학으로 바닷물도 신선한 마실 물이 될 수 있습니다.